



월경불순·야뇨 등 민간신약,
한 때 '대학나무'로 명성
샛노란 꽃보다
아름다운 붉은 열매,
산수유

봄이면 상춘객의 발길이 전국에 머문다. 관광객들이 꽃의 아름다움에만 매몰돼 그 풍경을 감상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사람들의 삶이 녹아 있다. 봄의 전령사인 노란 산수유는 꽃으로 명성을 얻고 있지만 열매는 예부터 귀한 약재로 쓰였다. 선불리 지나칠 수 없는 산수유의 매력과 그 속에 숨은 이야기를 찾아보자. · 사진 김원학(의학전문기자)

대나무를 베고 산수유를 심은 경문왕의 꽃

봄을 꽃 색깔로 이야기하자면 노란색을 꼽을 수 있다. 전국을 단 어버린 벚꽃이나 매화꽃이 봄을 대표하는 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봄을 대표하는 꽃 색깔은 단연 노란색이다. 개나리가 노랑이고, 산수유와 생강나무가 그렇다. 꽃다지, 민들레, 복수초, 양지꽃 또한 노란색으로 산과 들을 수놓는다.

노란색을 대표하는 꽃으로 산수유를 빼놓을 수 없다. 이른 봄이면 전남 구례, 경북 의성, 경기 이천 및 양평 등지에서 산수유 축제가 열린다. 물론 이들 지역의 산수유가 유명하지만 꽃과 열매가 예뻐서 때문에 조정수로도 각광을 받아 이제는 길가나 공원 등 어디에서든 산수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에는 산수유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우리나라 식물에 대해 연구한 일본 식물학자 나카이는 1920년대 산수유가 경기도 광릉 산속에 두

세 그루 있을 뿐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 바 있다. 「삼국유사」에는 당나귀 귀를 가진 임금인 신라 제48대 경문왕과 산수유에 대한 설화가 나온다. 임금님 귀에 대한 비밀은 오직 모자를 만드는 장인만이 알고 있었는데, 비밀을 간직하다가 죽을 때에야 전남 곡성 도림사의 대나무 숲 속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쳤다. 그 뒤로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소리가 났는데, 왕은 그 소리가 듣기 싫어 대나무를 베어버리고 산수유를 심었다. 이를 두고 흔히 경문왕이 언론을 탄압한 것을 빗댄다고 하는데, 대대적인 산수유 조림으로 질병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위한 경문왕의 마음이 드러난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산수유가 귀한 한약재라는 점에서 일면 타당하다. 민간에서는 약방의 감초만큼이나 필요했던 상비약이었다.



오줌싸개 어린이 차로 끓여 마시면 효과

어린이들이 밤에 이불에다 지도를 그리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흔한 풍경이다. 이때 시골에서는 산수유 열매를 끓여서 그 물을 규칙적으로 먹였다. 산수유는 아이들의 야뇨증을 고치는 데 특효약이라는 민간요법에 따른 것이다. 「동의보감」을 비롯한 옛서적에도 산수유가 야뇨증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특히 여자들이 월경과다를 일으켰을 때 산수유를 달여서 하루에 세 번 복용하면 월경의 양이 줄어들어 정상으로 되돌려주는 작용을 한다. 성기능을 높이며 정기를 돕는다고도 한다. 그래서 산수유술이 강장제로 유명하다. 「본초강목」에는 정력을 돕고 허리와 무릎을 따뜻하게 하며, 소변을 잘 통하게 하고 이명을 다스린다고 전한다.

또 열을 내리고 식은땀을 멈추게 하며, 당뇨병에 일정한 치료효과를 나타낸다. 장내와 피부의 균이 증식하는 것을 막기도 한다. 민간에서는 가끔씩 산수유로 죽을 쑤다. 산수유 열매를 짓이겨서 거른 것에도 꿀을 발라서 달여 먹는다. 남자들이 과도한 일을 하거나 성적인 권태감을 느낄 때 산수유죽을 쑤어 먹거나 열매로 차를 끓여 마셨다고 한다.

산수유마을 처녀들의 이가 성하지 않은 이유는

구례 산수유마을 인근에는 산수유로 만든 한과가 생산된다. 한과의 재료인 찹쌀을 반죽할 때 산수유 말린 가루를 집어넣는 것이다. 잘 찼은 산수유 반죽에 밀가루를 뿌린 다음 찹쌀반죽을 정사각형으로 잘라 12시간 동안 말리고, 여기에 식용유를 바른 뒤 이불을 덮어 6시간 동안 발효시킨 후 솥에 구워 조청을 발라 쌀 튀밥을 입히면 산수유 한과가 된다. 말린 산수유와 얇게 썬 무로 만든 산수유전, 산수유떡도 산수유마을 인근에서 맛볼 수 있다.

한 때 산수유는 값이 비싼 중요한 약재로 쓰이기 때문에 '대학나무'라고도 했다. 큰 나무에서는 산수유를 50~60근까지 수확이 가능해 큰 나무 세 그루만 있으면 자녀들을 대학까지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수입이 좋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수유 열매를 생산해 내는 과정은 고난의 연속이다. 수확한 산수유는



산수유나무일까 생강나무일까
이른 봄 산행에 나선 사람들은 노란색 꽃이 핀 나무를 보면 산수유라고 쉽게 단정한다. 그러나 산수유나무는 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식물이 결코 아니다. 산에 피는 산수유를 닮은 나무는 생강나무다. 생강나무는 어린 가지가 녹색을 많이 띠고, 줄기 끝은 매끈하다. 반면에 산수유나무는 어린 가지가 연한 갈색이고 오래된 줄기는 껍질이 조금 벗겨진다. 꽃 모양도 다른데 산수유는 작은 꽃 하나하나가 좀 여유 있는 공간을 가지면서 동그랗게 모여 있고, 생강나무는 작은 공처럼 모여서 달려 있는 느낌이다.

산수유나무는 타원형의 굵은씨열매(핵과)로 붉게 익고, 생강나무는 둥근 물열매(장과)로 검게 익는다. 생강나무는 가지를 조금 자르거나 껍질을 벗겨 문지르면 생강 같은 냄새가 나므로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생강나무는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 의 그 동백꽃이다.

잎이나 열매가 다 섞여있기 때문에 바람을 내서 잎을 골라낸다. 특히 산수유는 원래 씨앗을 빼내고 쓰는 약재이기에 씨를 치아로 직접 빼냈다. 이때 처녀가 입에 열매를 넣고 씨를 발라 뺀어 내어야만 효과가 좋다는 속설이 있다. 그래서 주민들의 치아가 성하지 않다고 한다. 예전에는 아가씨들의 치아를 보고 어느 지방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치아로 씨를 빼기가 힘들어 씨를 빼내는 기계가 사용되고 있는데 입으로 뺀 것보다는 가격을 덜 쳐준다고 한다.

산수유가 처음 약재로서 값어치를 발휘하다가 이제는 그 효과보다는 꽃을 위시한 관광효과가 더욱 각광을 받고, 조정수로 위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 과거보다는 약재로 내다 팔기 위한 노력이 줄어들었지만 값어치도 떨어졌다. 하지만 산수유가 갖고 있는 매력은 여전하다. 다만 산수유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이 달라졌을 뿐이다. 6